



시로 읽는 성보순례
해탈문에서
국보 제50호 도갑사 해탈문
조선시대 ▶2면

현대불교

마음은 맞기도 안맞기도 하다.
마음에 맞아도 탐욕내지 말고
마음 안 맞아도 미워하지 말라.
「잡아함경 제11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5월 22일) · 주간

대표단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86 호 2012년 7월 11일 수요일

불교 우수학술도서 고작 '3종'

문광부 선정 발표... 지난해 9종서 크게 줄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6월 28일 발표한 2012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 불서가 3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불교 주제 학술서로는 △역경학 개론(윤종남 외, 운주사) △직지 강설(상, 하) (무비 스님, 불광출판사) △미륵과 도솔천의 도상학(고해련, 일조각) 등 3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 학술출판 고취 및 출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우수학술도서 지원 사업은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 10개 분야서 선정한다. 그 뒤 문화체육관광부는 800~1200만원 상당의 각 선정도서를 구입해 공공도서관, 해외문화원, 교정시설 등

1000여 곳에 보급한다. 올해에는 4176종에 대한 심사를 통해 총 386종을 선정했다. 문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에서 불교관련 서적은 2008년에는 8종, 2009년 8종, 2010년 6종, 2011년 9종 등으로 매년 10종 가까이 채택됐다. 하지만 이번 선정에서는 3종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올해 기독교 우수 학술도서는 6종에 이른다. 이번 심사에서 종교분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윤기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은 "불교는 신성 권수가 적었다. 그나마 최우수 학술도서에 선정될 수준의 신성작이 접수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심사위원은 "이번 종교 파트 선정에는 논문집을 비롯해 번역서,

박사논문 등 이미 다른 곳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서적은 제외됐다. 또 심사위원이 속한 출판사나 소속단체의 서적도 배제됐다"고 밝혔다. 한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를 포함해 매년 정부예산으로 보급되는 우

히 기독교 관련 책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된 점이 눈에 띈다. 기독교 서적의 경우 심사위원 1명으로 부족해 다른 분야 심사위원이 심사를 도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번 우수학술도서 선정을 주관한 한국간행물위원회 유신영 차장도 "각 종교별 집계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매년 기독교 관련 신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학술도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이번 결과에 대해 "학술성이란 심사의 기준이 '대중성'이란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종교분야에서 불교학술서 선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불교만의 분야는 한계가 있다"며 "인문학과 불교학의 접점에서 보다 활발한 연구와 간행 등 활동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신청 도서 적어

기독교계 신청과 대비

인접학문 접점 모색해야

우수학술도서 중 불교서적은 2008년 16종, 2009년 18종, 2010년 17종, 2011년 24종, 2012년 15종 등 매년 비슷한 수준.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기독교 계의 활발한 활동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윤 연구원은 "이번 심사에서는 특

“우수한 인재 양성해 신도회 활성화”

이기흥 수석부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당선



중단 의호 · 불교 사회화
체육스타 통해 재정 확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5대 회장 에 이기흥 수석부회장(사진)이 당선됐다. 중앙신도회는 7월 6일 제24대 6차 대의원총회를 열어 단독 임후보한 이기흥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이기흥 회장은 신도회 운영에 대해 △신도회 활성화와 통한 재가불자들의 역할 강화 △종단외호와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 △포교기반 구축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회장은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일련 불교계 사태는 재가불자들의 책임이 크다. 앞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신도회를 활성화해 사찰 운영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불교에 대한 왜곡된 시각 등도 변화시키겠다"며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소외계층 지원, 불교사회화 기여 실현, 종교 평화활동 증진 등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재가 불자들의 인적, 사회적 연대를 통해 불자임을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30회 런던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으로도 활동 중인 이기흥 회장은 "스타 체육인불자 마케팅을 통해서 조직재정 운영금 마련 등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2007년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태릉선수촌과 올림픽공원 법당을 개원하기도 했다. 또

나눔문화재단을 설립해 200여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공로로 지난 해 대한불교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제30회 런던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제25대 중앙신도회장 취임식은 10월 중순경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신도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신임 감사로 김진목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부회장과 김영남 다르마 법조불교인회 회원을 선출했다.

또한 종단의 쇄신 계획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중앙신도회는 결의문을 통해 "종단 쇄신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종단 구성원으로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찰재정 관리 투명성을 위해 적극 참여, 화합된 종단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은경 기자



“한국 배우러 왔습니다”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7월 3일 서울시에서 연수 중인 WeGO(전자정부협체) 회원도시 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템플라이프를 진행했다.

7월1~7일 일정으로 서울시에서 연수 중인 10개국의 참가자들은 3일 째 일정으로 서울시 전자정부 관련 시설 현장을 견학하고, 한국문화체험을 위해 진관사를 찾았다.

사찰음식 체험과 다도 체험을 마친 참가자들에게 진관사 종무법해 스님이 2009년 칠성각 해체 보수과정에서 발견된 '진관사태극기'를 보여주며 진관사와 한국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조계종 쇄신계획 다지기 잇단 행보

사찰운영위, 중앙징계위 시행령 입법예고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제1차 쇄신계획의 토대가 될 쇄신입법들의 후속 조치로 분주하다.

조계종은 7월 5일 '사찰운영위원회법'과 '총무원법'을 개정한다. 다른 사찰운영위원회와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종령을 5일 입법예고했다.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사찰운영위원회법시행령'에 따르면 사찰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은 사찰 실정에 따라 주지가 결정하고, 사찰 신도회가 없는 경우 각급 신도단체 대표자가 협의해 위원을 추천한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종령은 5일 신도회 임원의 친인척 범위는 민법상

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주지는 운영위원회에 분기별 세입세출현황과 항목별·구분별 세입세출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하며, 사찰 운영위원회는 11월 말일 전까지 사찰의 세입세출 예산서를, 1월 말일 전까지 결산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은 교역직 총무원 징계를 위한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명문화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총무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며, 교구본사주

지 2명, 중앙종회의원 2명,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법제 대덕(혜덕) 이상의 승려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공포하고, 위원회를 종단의 공식기구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쇄신 위원 인원은 기존 19인에서 35인으로 확대됐으며, 종단 쇄신 방안 수립과 법안 건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개신교계 이제는 '불교계 때리기'?

국민일보, '역사문화기념관' 종교편향으로 지목

조계종 "갈등 우려 주시 중"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대한 전방위 흡집내기를 진행하고 있는 개신교계가 이제는 불교계 전반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개신교계 언론인 국민일보는 7월 4일 '잘못된 종교편향 논리를 깨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불교의 정교분리 위반 실제 사례'를 지적하며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하 역사문화기념관)을 예로 들었다.

국민일보는 국교를 지원받은 역사문화기념관이 조계종 종단의 편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불교계가 스스로 종교편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개신교계 언론의 보도에 불교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기념관에는 박물관, 국제 회의장, 전통공예품 전시관, 갤러리, 찻집 등의 공공시설물이 운영되고 있다. 대관 역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으면 대부분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7월 5일에

는 서울특별시와 종로구가 주최한 '서울시 문화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7일에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출판기념회도 진행됐다. 결국 개신교계의 공격연한 흡집내기는 지적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빌미로 불교계 전반을 흔들려는 의도"라며 "심각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대한 개신교의 압박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예장합동·예장통합·한국교회연례회·미래목회포럼·공공정책포럼 등의 개신교계 지도자들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향의 방문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용역계약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연구용역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일 기자

896호 INDEX

종단
진각종조 범어집 8개어로 출간
조계종 교역직 인사 단행

종합
백일 맞은 '생명평화 천일 정진'

시방세계
달인 김병만, 금산사 템플스테이



신행
신도증으로 여름을 실속있게

부처님 심대 제자에게 배운다
사리불승舍利佛 (중)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영혼의 길을 안내하다...

www.hyonjisa.com

가야할 길을 안내하는 영혼 길잡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역사의 제단위에 올려놓는 수행인의 양심서. 나는 염불삼매 속에서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사후세계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 천당, 극락 등과 같은 것인지, 불교의 윤회전생이란 진실인지 등에 이르기까지 알고싶은 모든 분들께 괴로운 쏨으면서 높은 바를 수행인의 양심으로 말하는 이시대의 진정한 종교 양심서! 이것은 책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을 안내하는 영혼 가이드북입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정가 18,000원

부처님을 본다 / 무량광 / 건성공부의 시작 / '도움' 명언에 대한 일갈 / 윤회전생 / 윤회를 넘어 / 불(佛)의 상신을 말한다 / 계율 /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불교, 그 위대함 / 독자분들의 질문에 답한다 / 상해 / 청명염불 / 소 · 대승 불교경전 / 신통 / 지옥 / 공안 / 부처님께 공경드릴 수 있다면 천바 / 선공공덕의 보따리 / 불문의 사부중에게 / 영적 스승을 만나려 / 가섭존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 정가 18,000원

붓다의 삶과 / 석가모니부처님, 우리 교주 불세존 / 불신론 / 무아 속 절대계 / 이제는 티끌 불교다 / 자전, 연기 / (회망경(법화경)은 방편설이 아니다 / 용신, 인연인신 /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 윤회의 주제-인간 영혼의 실제 / 중생의 업장 / 무아사상 / 중생의 악행과 부처님 계율 / 염불이 정법이다 / 대적광천, 다보탑, 석가탑 /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에게 /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면 열반에 이르리 / 나리가 잘 살기 가장은 평안하기를

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이대성 교수

저술에 가 있는 독일의 자연과학자 '뒤 바이베르' (1818-1896)이 펴낸 일어난 일이다. 불가지론자인 프로타고라스, 인간인식의 한계를 주장한 칸트(1724-1804)도 데이비드 흄(1711-1776)도 모두 저술에서 곧 달려온 것이다.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기원, 영계론과 붓다의 삼신론, 붓다의 구원론, 천도제의 필요성 등등, 인간의 영원한 삶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세기의 명저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들어 있다.

불서출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은이 - 광명 만덕 · 지재 민현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번지 - T.033-243-1795, 243-1787 Homepage - http://hyonjisa.com

부산본원 - T.051-554-5150 대전본원 - T.042-525-5325 고성본원 - T.033-681-5515 서울본원 - T.02-453-5953 대구교포원 - T.053-654-5557